

매일 한시간씩 3천일...또 천일

3천일 기도 9년만에 회향한 여산 거사 가족



6월 25일 3000일 기도를 마친 여산 거사의 가족들.

1997년 4월 5일, 군산에 거주하는 김윤봉(여산·55), 표경희(보현심·53) 부부는 2남 2녀 자녀와 함께 3000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무려 9년 만에 입실 상아암(주지 동호에서 인연 있는 불자들과 함께 조촐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시방세계에 가득한 불보살님들이여! 이 기도로 법계 일체중생이 발 보리심하여 해탈, 행복해지고, 아울러 저희 또한 세세생생 지은 업장 소멸하여 위없는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기도 입제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 보근이가 이제는 대학 3학년.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조리던 발원문이 자신을 울곧게 지

켜준 힘이 있었음을 느낀다.

여산 거사 가족의 기도는 문근, 보근 형제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동호 스님이 평소 잘 따르는 형제에게 끈기와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해 1000일기도를 권유했다. 선뜻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곧장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생활화 된 여산 거사 부부는 기도의 어려움을 알기에 '처음엔 며칠하고 그만 두겠다'고 생각했다. 서너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다. 힘을 북돋아 주기위해 부부가 아이들의 기도에 동참했고, 딸들도 함께 하겠다고 가족이 모여 3000일 기도를 입제했다.

가족 모두 솔선수범 한마음의 결과 매일 1시간 진행 시간 장소 자유롭게

여산 거사 가족의 기도는 '천수 다라니(108독)-관음정근(15분)-발원문'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는 각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한다.

"단순히 인내심을 길러보자는 시작만 기도였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모두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창할 것은 없지만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부터 돌아볼 생각입니다."

큰아들 문근이의 말에 어머니 보현심 보살도 고개를 끄덕인다.

여산 거사 가족은 3000일 기도를 회향한 다음날 아침 또다시 1000일 기도를 입제하고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흩어졌다.

글·사진/입실=이준엽 기자



6월 25일 양양 진전사 현지에서 열린 낙성법회 모습.

백양사, 대웅전 부처님 새로 조성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 대웅전의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로 조성된다.

백양사 총무 진우 스님은 6월 24일 "대웅전 불상을 정밀 진단한 결과 부식진행이 심하고 얼굴부위가 부풀어 올라 파발하고 새로 봉안코 했다"며 "6월 23일 대웅전에서 불상을 옮겨왔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새로 조성되는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문수, 보현 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로 내년 곡우절에 점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종단이 폐사지 관리하는 좋은 계기"

양양 진전사 낙성식 열려

조계종 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복원 낙성식이 거행됐다.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6일 강원도 양양 조계종찰 진전사 현지에서 열린 낙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폐사지가 종단의 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문화재청과 종단의 관심부족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

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진전사 복원을 계기로 폐사지 관리가 종단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혜정, 원로의원 황안, 신희사 주지 오현, 교육원장 정화 스님 등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권한대령 등 참석했다.

글·사진/양양=고영배 기자

그동안 백양사 사중에서는 대웅전 불상이 너무 커 방화를 가리고 있어 법당이 답답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조성되는 삼존불은 1917년 만암스님 중창 당시의 불상을 참조해 6자(180cm) 크기로 조성한다.

이준엽 기자

사찰린 강제징용한인 위령제

일제시대 사찰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린다.

사찰린 피징용한인 위령제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몽산·한명숙)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사찰린 우금데고르스크,



6월 29일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도라전망대를 찾은 세계 종교인들.

세계 종교지도자들 비무장지대 방문

"세계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해 대한민국을 찾은 우리들은 전쟁으로 무너지고 찢어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세계 13개 종교를 대표하는 50개국 100여 종교지도자들은 6월 29일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린 경기도 도라전망대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도라전망대를 통해 비무장지대와 남북경협을 위한 경의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현장, 북녘 땅 개성시를 바라보며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이날 발표한 평화선언문을 통해 △남북한 군비 경쟁의 중단과 북지 및 교육 예산 확대 △비무장지대 환경공원 등 평화지대로 전환 △남북 정상회담, 6자 회담 등 남북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s of Korea, 대표 진월)이 "다양한 얼굴, 한 세계: 분단의 가교, 한국 및 세계의 종교연합"이란 주제로 6월 26일~7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 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 세계이사회 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강유신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등에서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한인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정동제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위령제는 불교식 천도재와 함께 각종 문화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고혼이 된 사찰린 강제징용동포들을 위해 위령재라도 올려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양주 오봉산 석굴암

기도소리 1초도 안 끊겨요



나한전 석굴 보수공사 준공식에서 봉선사 주지 도일·석굴암 주지 도일·봉선사 주지 철안·가평 현동사 주지 초격(왼쪽 세 번째부터 오른쪽 순으로) 스님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오봉산 석굴암, 석굴암 가는 길 초입에서 군부대 초소를 만나게 된다. 초소를 통과해 꼬불꼬불 비탈길을 오르다 보면 울창했던 숲이 한 순간 사라지면 서 확 트인 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아래에서 올라다보면 꼭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절. 석굴암은 꼭한 쪽의 그림자처럼 숲속에서 있다.

거기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불만한 절 석굴암.

사실 석굴암은 그런 경치보다는 기도처로 유명하다. 천년고찰이자 청정

천일기도를 두 번이나 했다. 이렇게 주지 스님이 계행을 철저히 지키며 올곧게 수행하자 신도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신도들은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철야기도를 하는데, 적게는 60~70명이 많게는 140명 정도가 참석한다. 이 철야기도도 불사관계로 최근 들어 한 차례로 줄인 것으로, 지난 4년간 한 달에 두 차례씩 해왔다.

봉선사체인 관음회와 청년회, 신도회의 활동도 덩달아 활발하다. 최근에는 포교에도 역점을 두기 위해 매주

천연 기도석굴로 유명한 나한 도량 수련장 건립불사 진행, 포교에도 역점

나한기도도량인 석굴암이 기도처로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바로 천연 기도석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나한전 석굴'은 국내 최대규모의 천연 기도석굴로, 이곳에서 기도 정진해 뜻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나한전 석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석굴암은 2003년부터 공사를 벌여 기존 13평에서 38평으로 석굴 규모를 확장하고 지난 4월 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석굴암을 최고의 나한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1998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일체의 산문 밖 출입을 하지 않은 채

토·일요일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를 위해 석굴암은 현재 내후년 완공을 예정으로 수련장을 겸한 설법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다시 천연기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사가 끝나면 오갈 데 없는 아이를 108명을 키우고 싶어요."

주지 도일 스님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원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원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석굴암의 설화, 연혁, 풍경, 불자들의 신앙수기, 석굴암 가는 길 안내 등은 석굴암 홈페이지(www.sukgulam.com)로 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031)826-3573 한명우 기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산사로의 초대 고불총림 참사람 수행

참사람의 향기 "수행으로 가꾸는 삶"

참다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참다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가므로 어떠한 꽃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니 전단수나 목향수, 화만수도 마찬가지네.

고불총림 참사람 수행 일정 및 신청 안내 - 주제 : "수행으로 가꾸는 삶"

수련일정 :

구분	수행기간	참가인원
1차	7월 11일(월) ~ 15일(금) 4박5일	60명
2차	7월 18일(월) ~ 22일(금) 4박5일	60명
3차	7월 25일(월) ~ 29일(금) 4박5일	60명
4차	8월 1일(월) ~ 4일(목) 3박4일	60명
5차	8월 6일(토) ~ 9일(화) 3박4일	60명

- 접수기간 : 2005년 6월 24일(금) ~ (정원 모집시 마감)
- 참가인원 : 각 기수별 60명 정원
- 접수방법 : 백양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 참가비 : 3박 4일 80,000원 / 4박 5일 100,000원
- 문의전화 : 061)392-7502 / 팩스 : 061)392-2081 (템플스테이담당자) qksditn@hanmail.net
- 입금방법 : 농협 645117-51-014851, 우체국 501536-01-000205 (예금주 : 백양사)
- ※ 참가 본인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입금확인 후 정식 등록이 됩니다)

백양사 소개 : 백양사는 호남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찰로서 백제시대 여환조사가 창건한 이래 근대 만일 근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창 불사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일 큰 서지사이신 서유근스님께서 속세의 많은 대중들에게 참나를 찾아 서로를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참사람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 수행 도량입니다.

덕승총림 수덕사 여름 禪 수련회

	일정	기간	프로그램	수련비	참가인원	대상	비고
1차	7월 20일 ~ 7월 22일 (수요일-금요일)	2박3일	동국대학교 수련회	5만원	100명	대학생	접수마감
2차	7월 27일 ~ 7월 30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접수중
3차	7월 31일 ~ 8월 2일 (일요일-화요일)	2박3일	만일염불회 수련회	5만원		불자들	접수중
4차	8월 4일 ~ 8월 6일 (목요일-토요일)	2박3일	禪 수련회	5만원	80명	일반인	접수중
5차	8월 10일 ~ 8월 13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접수중

※ 궁금하신 사항은 수덕사 중무소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문의 : 041)337-6565, 011-1705-4828 / 팩스 041)337-0072
e-mail : tan002@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310060-01-005443(수덕사 포교국)



(수덕사 대웅전 : 국보 제49호)

주말 禪 템플스테이

선법의 기운이 충만한 수덕사에서 차한잔 하고 가십시오.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禪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중한 경험이 되실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net)를 참조하세요.